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그리움이 엷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때일까. 초의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어느 해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가 '객지의 울적한 마음이 더욱 오래되어' 라고 한 것이나 초의를 '일로암향사(一 :鱸香史)' 라고 부른 것에서 그가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제주 유배시절임을 짐작케 한다. 제주 시절 어느 해 섣달 11일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일로암향사(一 :鱸香史) 한 해는 저물어 가고 또(날씨마저)추우니 화롯불에 토란을 굽는 풍미를 생각할 만합니다. 곧 (그대에)묻노니 이즈음에 계의 실행이 길하고 상서로운지요. (그대를 향한)그리움이 엷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요행히 그대가 날마다 〈무량수경〉을 읽으며, 빌어주는 성의에 힘입어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기쁘고 감사하며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만 객지의 울적한 마음이 더욱 오래되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일 년의 반은 (내)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그대가 있는)산중에 머물러 있는 듯하니 세월을 어찌하는가. 첩의 이 글씨를 올려 보내지만 형상이 거칠어 더욱 부끄럽습니다. 글씨엔 반야를 함께 드러냈습니다. 후배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이보다 잘 쓰게 하는 것이 어떨지요. 나머지는 이만 줄입니다. 납월 11일 륵구(泐具:형식만 갖추었습니다)(一 :鱸香史 歲暮且寒 ⿱艹風味可想 卽問此際戒履吉羊 溯念不淺 俗人幸賴 師日誦無量壽經祝釐之力 得以安存喜荷喜荷 但客懷大淹尤苦 一曆伴似 領情留作山中 日月如何 來帖玆書呈而形穢甚愧 所書含出般若 使後生輩試爲之用工於此 如何 都留不式 臘月十一日 泐具)

이 편지의 말미에 납월 11일이라 하였으니 이는 섣달, 곧 엄동설한에 보낸 편지이다. '한 해는 저물어 가고' ' 또(날씨마저) 추운' 이 때 초의가 못내 궁금했던 추사였기에 편지를 보낸 것이다. 외우(⿱艹芋)란 화롯불에 토란을 넣어 굽는다는 뜻이다. 실제 외우에 대한 옛 이야기는 당 나라 이필(李泌)과 관련이 깊다.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필이 형악(衡岳)에 있을 때, 명찬(明瓚)이란 승려가 있었다. 이필은 그 승려가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밤에 그를 찾아가자, 명찬 승려가 구운 토란을 꺼내어 씹으며 하는 말이 '여러 말 마시오. 그대는 장차 10년 동안 재상 노릇을 할 것이요' 라고 했단다.



도판 추사 글씨 '죽로지실'

초의를 명찬 승려처럼
눈 밝은 수행자로 인식
추사가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초의가 읽어주는 〈무량수경〉 덕분

따라서 외우의 풍미는 초의가 명찬 승려처럼 사람의 미래를 잘 점칠 수 있는 눈 밝은 수행자로 인식한 것은 아닐까. 추운 겨울, 뜨겁게 구운 토란의 풍미도 향기롭고 맛이 좋겠지만 추운 겨울과 뜨거운 토란, 이는 대비의 극점을 잘 드러낸 말로, 추사의 언어 구사의 묘미를 잘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초의에게 향한 추사의 마음은 '(그대를 향한)그리움이 엷어지지 않는다' 는 대목에서 더욱 또렷이 빛난다. 특히 자신이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초의가 '날마다 무량수경을 읽으며, 빌어주는 성의에 힘입어'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의 우정은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객지에 오랜 머물던 추사는 울적한 마음이 일어 더욱 '고통스럽다' 하였다. 따라서 이 편지는 추사가 제주 유배지에 머문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보낸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를 위로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시를 짓고, 글씨를 탁마했던 그였기에 제주 유배시절, 추사체를 완성했던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그의 서체 예술의 지선(至善)은 제주시절 완성된 셈이다. 한편 자신이 쓴 글씨에 '반야를 함께 드러냈다' 고 하였으니 반야는 곧 지혜이다. 법의 실다운 이치에 딱 맞는 최상의 지혜가 글씨에 드러났으니 '후배들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나보다 더 지혜를 담은 글씨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지' 를 반문하였다. 대흥사 승려들 사이에 더러 추사체를 잘 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의 교유가 남긴 여훈(餘薰)이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법 알리는 종합 엔터테이너 되고파"

김윤희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

"전 태생적으로 수리에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재에 밝지 못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로서는 제로점수죠. 이건 운영자로서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닌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 협력업체와의 업무나 사찰 측과의 업무에서도 경영마인드 대신 수행마인드로 살아요.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요. 그래도 부처님법 믿으니 마음은 든든합니다."

1999년부터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를 무료배포하고 있는 김윤희 대표는 자신의 경영마인드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는 부산 지역 각종 사보는 물론 출판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잡지 발행에 쏟아부으며 문서포교사의 길을 걷고 있다.

〈맑은소리맑은나라〉의 시작

"처음 제가 시작한 잡지는 아주 어설펐습니다. 36쪽 분량으로 선사들의 이야기를 실었고, 그 길에서 만난 불교신자들의 신행이야기, 금쪽같은 경전, 향기로운 법문 등 여느 불교언론의 지면들이 다룰법한 내용들을 게재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불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소위 '종이 언론' 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이렇게 잡지를 발행하는 것이 스스로 참신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교언론사 기자로 일했던 김 대표는 1999년 불교월간지를 펴내는 발행인이 되고자 결심하고 맑은소리맑은나라를 창립한다. "옥탑방 같은 사무실에서 직원 두명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1인 다역을 하는 오너로 살기 시작했어요. 취재현장을 누비는 기자로, 편집 · 발행인으로, 출판사 사장으로 참 열심히 뛰었습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열정과 믿음만 가지고 쉼 없이 일을 했어요. 출판을 해서 나오는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며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한 해 두 해를 보태다 보니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무료 월간지를 발행하기 위해 그녀는 사보출판사를 병행해 수입을 얻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당시만해도 사찰이 사보를 발행하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사보전문 출판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찰에서 사보 전문기자를 쓰지 않는 이상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런 예상은 적중했다. 〈맑은소리맑은나라〉가 불과 몇 호를 발행했을 즈음 그녀는 통도사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책의 내용이 좋으니 사보를 맡아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통도사처럼 대형 사찰의 사보를 만들게 된 것은 김 대표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부산 불교계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던 것도 큰 공덕이 되었죠. 지중한 인연으로 저는 지금껏 통도사의 월간 사보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교전문 출판사로 단초를 세우게 된 원천이며 가장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량도 통도사입니다. 이렇게 물꼬를 트니 이후 다른 사찰에서도 사보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김 대표는 통도사의 〈보궁〉을 비롯해 무비 스님의 〈염화실〉, 봉화 축서사의 〈축서사보〉, 마하보디(자재병원) 능행 스님의 〈보디사트바〉, 법륜사의 〈학소대〉, 관음사의 사보 등 다양한 사찰사보와 신문, 법요집 등을 제작하고 있다.

문서포교는 '나의 행복'

신실한 불자였던 어머니 덕분에 불교문화에 익숙했던 김 대표가 불교언론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간지에서 수습을 마치고 새내기 기자로 일하던 그녀에게 한 사찰을 소개하는 기사를 쓰게 된 인연으로 부산불교신문과 인연을 맺게 된다.

"제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시 부산불교신문 발행인이셨던 정암 스님(해동 용궁사 주지)이 연락을 주셨죠. 그렇게 많이 망설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는 당시 꾸었던 꿈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꿈에서 개울의 커다란 돌다리를 건너는데 중간쯤 가니까, 어느 스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더군요. 그래서 과감히 일간지를 뒤로하고 불교계에 첫발을 내디뎠죠. 그것은 지금도 제겐 청복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을 만나 이토록 넓은 대해를 맘껏 유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이후 그녀는 〈맑은소리맑은나라〉를 창립 월간지 발행과 사보 출판을 이어가니 부산불교신문 입사는 문서포교의 시작이 된 셈이다. 김 대표는 지난 시간 동안 단행본도 다수 발행했다. 기후 스님(호주 시드니 정법사 회주)의 구도소설 〈꿈속의 인연들〉, 부산 원효센터 회주 공파 스님의 〈부처님의 유언〉과 〈바이로차나1, 2〉,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명정 스님의 〈차 이야기, 선 이야기〉 를 비롯한 경봉 스님 관련 책들도 발간하게 된다.

"〈꿈속의 인연들〉은 기후 스님께서 병석에서 일어나 쓰신 구도소설인데 그 내용의 전개가 너무도 감동적이고 전개방식 또한 여느 전문 작가들의 구상을 뛰어넘는 작품이라 생각돼요. 그 안에 승가의 공부와 승가 주변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정말이지 모골이 송연해지는 책입니다. 책은 2만부 가량 팔렸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서울 영풍문고에서 스님의 팬사인회까지 가질 정도였죠." 김 대표는 판매 수입 중 1500만원은 기후 스님의 호주 시드니 정법사 불사 기금으로 회향하기도 했다고.

또한 공파 스님의 〈부처님의 유언〉은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으로 불유교경의 마지막 구절들을 스님의 금쪽같은 대입과 해설로 풀어냈다.

사보 · 출판에서 얻은 수입금으로
무료 월간지 발행 문서포교 16년
기자 · 발행인으로 1인 다역하며
부산 불교계 출판언론 활동 매진

전시공간 갖춘 아트홀 건립해
불교문화 널리 알리는 것 '발원'

또한 〈바이로차나 1. 2권〉은 고려시대 야운 스님의 〈자경문〉을 스님 특유의 명해설로 역해한 내용이다. "저는 공파 스님을 항상 '나의 스승님' 이라고 불러요. 관념적인 불교인에서 바른 불교인, 신의의 불교인으로 이끌어주신 최고의 강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 3년 여에 걸쳐 〈대승기신론 해동소〉를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때 익히고 수지한 것들은 지금 제가 살아가는 데 최상의 양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문서포교를 하는 저에게 단단한 기운을 부여해 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불교문서를 만드는 것만으로 큰 복밭에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한다. "스님들의 다양한 책들을 출판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전 굉장한 '복밭' 에 앉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현대의 선지식이신 경봉 스님의 수행이야기를 저의 손으로 다시 엮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복덕인지 몰라요. 동시대 언저리도 함께 하지 못한 까만 후손이 무슨 복력으로 그 선사들의 책을 출판할 수 있겠어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입니다. 더불어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선사의 법담을 일일이 교정하는 동안, 저는 그 수승하신 시대의 선사들과 도담을 나누는 듯 착각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불교의 삶에서 찾은 행복

이렇게 불교 곳곳의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스님을 만난 김 대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스님은 누굴까? 그녀는 주저없이 축서사 무여 스님을 꼽았다.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 스님의 향기가 몇날 며칠을 떠나



맑은소리맑은나라 김윤희 대표는 16년 동안 문서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사진은 11주년 기념식 때 직원들과 함께.





김윤희 대표는 … 1966년 충남에서 출생했다. 1995년 부산불교신문사와의 인연으로 불교계에 입문했으며 1999년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와 동명의 출판사를 설립하여 불교문서포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2010년, 맑은소리맑은나라 창간 11주년 기념, 〈폐사지에서의 발견, 여래를 품다〉 단행본을 내놓았으며 두 차례의 개인사진전 '우주를 품은 시선'과 ' 김윤희, 맑고 고운 사진전'을 국제신문사와 영광도서 갤러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08년 조계종 여성개발원이 선정한 '108 여성불자'로 선정되었다.

지 않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고.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카메라 셔터가 안 눌러질 정도로 추운 한겨울 날씨에 축서사로 스님을 뵈러 갔어요. 스님을 대담하고 나왔는데 정말 스님의 향기가 몇 날, 며칠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허기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충만함으로 가득차 있었죠. '저런 모습이 수행자의 참 모습이구나' 라며 스님을 가슴에 새겼지요. 그저 '거룩하다' 는 말이 툭 터져나올 뿐이었습니다."

이후 무여 스님과의 인연은 새롭게 이어지게 된다. "취재하면서 스님을 몇 번 뵙기는 했지만 스님께서는 제가 〈맑은소리맑은나라〉 발행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러던 중 사중의 소임자를 불러 불교교양지 중에서 이 잡지가 가장 여법하니, '이곳에 연락해 사보를 의뢰함이 어떤가' 라고 하셨대요. 결국은 제가 스님을 찾아뵙고 몇 해 전 취재를 왔던 기자가 이 책을 발행하는 저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축서사의 사보를 전담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니 무여 스님과의 지중한 인연도 예사 인연력이 아닌 셈이지요." 지금도 스님은 김 대표를 '우리 예쁜이 보살' 이라며 정답게 불러줄 만큼 각별하다.

"스님께서는 항상 재가자든 수행자든 자신을 오롯이 들여다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평소 느끼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수행의 깊이도 나오고 살아갈 길도 나온다고 말씀해주세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죠."

이렇듯 불교와 삶이 둘이 아닌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에게 불교란 무엇일까? 그녀에게 불교는 삶의 나침반이며 지혜를 일러주는 삶의 지침서라고 말한다. "부처님 법을 만나 이를 수지하니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최상의 법에 따라 제 삶을 조정하고 있으니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맞추어 살아가잖아요. 정치인이든 기업가든 세간의 사람들이 욕망을 갈구하며 서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불교만 제대로 배워도 저렇게 살진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남 탓할 일이 없어요. 부부도, 동료도 다들 지어놓은 선업과 악업 그리고 인연 따라 이생에서의 관계를 지어 살아가는 것이니 서운한 일도 없어요. 다소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확연히 이해가 돼요."

김 대표는 불교의 인연법을 터득하고 난 뒤부터 이렇게 상황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김 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공부', '내 살림' 잘 사는 일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최상의 불사라고 전한다.

그녀는 108배 기도를 통해 자신을 다져나가는 일도 잊지 않는다. "곧잘 집에서 새벽기도와 108배를 자주해요. 절은 나를 관조하며 내려놓는 최고의 수행이에요. 제 내면을 여실히 들여다보고 관할 수 있어 좋습니다. 특별히 정해놓고 신행모임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부산불교신문사에 입사했을 때 후배기자였던 천미희 기자와 함께 한마음선원 청년회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둘은 좋은 도반으로 법담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하고 안팎으로 나의 일에 철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불자로서의 삶이겠죠."

김 대표는 앞으로 언론출판 활동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업무를 이어가고자 한다. "사실 업무량에 비해 마진폭이 아주 떨어지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현재 직원이 저를 포함해 8명인데 빠듯하게 사업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심이 항상 우선이기에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죠. 단지, 조금만 더 이윤을 창출해 직원들을 위해 더 베풀며 참다운 불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트홀을 겸비한 불교 전시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그녀의 원이다. "불교출판에서부터 불교 전시기획 관련 일은 뒤지지 않을 만큼 잘해낼 자신이 있어요. 앞으로 아트홀을 겸비한 공간 확보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를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라도 그려낼 수 있는 '공부' 하는 '종합불교엔터테이너' 가 되고 싶습니다. 또 후배들에게 그간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13년 봄 호주 시드니 정법사 창건 20주년 행사 때, 축서사 회주 무여 큰스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김윤희 씨.

전법일기

"군법사는 스님이지만 머리가 길어요"

간부를 양성하는 부대의 법사로 있으면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교육생들이 법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일일이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인연이 생기면 아무래도 기억하게 되지요.

한번은 법당에 나온지 6주 정도 지난 청년 불자가 심각한 얼굴로 법회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법사님, 법사님은 스님이십니까?"

무슨 날벼락 같은 질문일까요? 사실 그 청년 불자는 군대에 오기 전에 한번도 절에 가본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입대를 할 때가 되니 어머니께서 군에 가면 꼭 절에 가서 스님 말씀 잘 들으라고 신신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침 부대에 절이 있어서 매주 참석을 했는데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 일주일 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법당에 나가라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더불어 우리 법사님은 젊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생기시고, 헤어스타일도 저희처럼 짧은 스포츠형으로 하셔서 친근감도 들고, 때로는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자랑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런데 청년 불자의 편지를 받아보신 어머니께서 걱정스런 어투로 답장을 보내셨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법당에 즐겨 나간다고 하니 엄마로서는 기쁘기 그지없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걱정이 생기는 구나. 엄마는 20년 넘게 절에 다녀봤지만, 젊은 스님을 본적이 없고, 더군다나 머리를 기르고 스님이라고 부르지않고 법사라고 호칭한다고 하니 혹시 아들이 신흥종교에 간 것이 아닌지 걱정이구나'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졸지에 신흥종교의 법사가 된 저는 그 청년에게



그림 · 박구원

군법사님들은 다들 스님이시고 군이라는 특수한 곳에 있다보니 머리를 기리기도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더불어 젊은이들이 즐겨보앗던 '날아라 슈퍼보드' 의 삼장법사도 스님이라고 예를 들어주었지요. 제 말에 그 친구 얼굴에는 순식간에 환희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말에 그리 짧은 순간에 환희심이 가득한 얼굴로 변한 청년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군대에 있다보면 초심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이런 저런 사연이 많습니다. 예전에 군법당에 열심히 나오던 젊은 장교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젊은 장교가 전출가는 부대에는 법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근처 민간 사찰에 가서 매주 법회에 참석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고 나서 일요일 오후에 그 젊은 장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3주 동안은 부대 업무 파악과 숙소를 정리하느라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날 처음으로 절을 찾았답니다.

마침 절에는 법회가 열려 있었고 10여 명의 보살님들이 스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랍니다. 그리고 법회 후에 따로 부르시더랍니다.

"젊은이는 처음보는데 무슨 일로 절엘 왔나? 부모님이 아프신가? 아니면 애인과 헤어졌나?"

군법당에 익숙해져서 일요일에 법회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자는 당혹스러웠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회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노보살님들이었는데 어찌해야 하나 싶었는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서둘러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숙소에 와서 제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초심자들에게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도 그들이 자대에 배치받아, 혹은 전역 후 법회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민간사찰에서는 도시 일부 사찰에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회가 있을 뿐 대부분 중년층이 주 대상인 법회에 청년불자가 일부 끼어드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도 법사들은 전법의 길을 갑니다. 때론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소식을 듣더라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기에…



정행 이익수 군승 법사(육군학생군사학교 학림사 주지)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세계 불교 법왕 & 승왕 추대 확정 발표 의식

합동 금강계단 & 법왕청 중앙정부 각료 임명식

주최 :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행사일시 : 불기 2558년 5월 9일

장 소 :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 관음도량 보타낙가산

불기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하여 세상에 알리고
불기2559년 초파일을 전후하여 법왕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는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고승 및 원로스님,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거른다는 측면에서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을 밝혀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큰스님께서 이 야단법석에 오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위원회 위원장 대승정 목탁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허가조차 받지 못한 명의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